

남원시, 전국 규모 청소년캠프 유치

'119 프로미 안전리더 캠프'·'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 안전 도시 이미지 강화...7월 1000여명 참가 경제 활성화 기대

남원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모험과 탐방을 즐기는 전국 규모 청소년캠프를 유치했다.

남원시는 소방청이 주관하고 현대백화점, DB손해보험이 후원하는 '제2회 119 프로미 안전리더 캠프'와 '제3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캠프는 7월22-28일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캠프 남원 유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대상인 '제복공무원 자녀 캠프'를 포함하고 있

다.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인 제2중앙경찰학교와 소방심신수련원 등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청소년 안전캠프 유치를 통해 남원시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찰 및 소방 공공기관 유치 연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문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남원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남원시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생각할 수 있게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전략적 접근과 빠른 대응으로 이번 청소년캠프 유치에 성공했다.

참가자들은 의류와 간식 등 물적 지원과 함께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 지리산에서 살아남기, 관란루 안전 탐방, 춘향이와 함께하는 안전 탐방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배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청소년 안전캠프 유치를 통해 남원시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찰 및 소방 공공기관 유치 연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문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남원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남원시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생각할 수 있게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사랑상품권 20% 할인 3월까지 연장

최대 300억 규모...특별할인 이번달 충전액부터 적용

고창군이 지역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판매를 3월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최대 300억원까지 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경기부양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애초 1월 말까지였던 '고창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 혜택을 오는 3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300억원 규모까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할인율은 지난 1월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을 제공하며 '고창사랑카드' 사용 시 추가 10% 캐시백을 지원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 월 구매한도는 70만원, 지류형 상품권 월 최대 구매한도는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

지된다.

특별할인은 2월 충전액부터 적용돼 시행 중이다. 사용한 금액은 2월 중 '고창사랑카드'에 소급 적용되며, 해당 내역은 '고창사랑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지역 자금 유출을 방지해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성 고창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이 큰 호응에 힘입어 특별할인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군과 군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주민 소통 공간 '매화언덕' 문 열었다

남원시는 지난 4일 사매면에서 지역 복합문화공간인 '매화언덕'의 준공식(사진)을 열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진행된 이 사업에는 59억원이 투입됐다.

'매화언덕'은 연면적 1552㎡에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카페, 강당, 코인빨래방을, 2층은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회의실을 갖췄다. 족구장과 황톳길도 조성됐고 부근 도로 정비와 조경수 식재로 주변 환경이 개선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매화언덕이 지역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논에 벼 대신 밀·깨 재배하면 직불금

정읍시, 5월30일까지 농가 전략작물직불금 접수

정읍시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5월30일까지 접수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등이다. 신청 자격은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의 농업인이며 작기별 전략작물 1000㎡ 이상 재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 면적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논에 벼 대신 밀, 두류, 가루쌀, 조식료, 식용 옥수수, 깨(들깨, 참깨) 등을 재배할 경우 1ha당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이 달라진 점은 하계작물로 깨(들깨, 참깨)가 새롭게 추가됐고 밀(동계)의 직불금 단가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식료(하계)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 점이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식량작물·조식료(동계) 50만원 ▲밀(동계) 100만원 ▲식용 옥수수·깨(하계) 100만원 ▲두류·가루쌀(하계) 200만원 ▲조식료(하계) 500만원이다.

특히 동계 밀이나 조식료를 재배하고 하계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ha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동계작물 재배 농업인은 3월31일까지, 하계작물 재배 농업인은 5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큰 곳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올해 전략작물 재배 품목 확대와 단가 인상된 만큼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쌀 생산량 조절, 쌀값 안정화,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동보장구' 경제 부담 줄이고 안전 더하고

정읍시,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자동 가입...연말까지 보장

정읍시가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상책임보험 자동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이동편의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을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의 보험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보장 내역은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실시한다.

시청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리비의 90%, 일반 장애인은 50%를 지원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가 시청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고창 파크골프장 2027년까지 5곳 신설

올 상반기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등 개장...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창군이 오는 2027년까지 5개의 파크골프장을 새로 지어 생활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장한다고 6일 밝혔다.

고창에는 현재 고창읍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27홀·9000㎡), 고수 파크골프장(9홀·9000㎡), 상하(9홀·7500㎡) 등 3곳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공음면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18홀)과 성송면 파크골프장(9홀)이 잇따라 개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27홀)과 운곡 파크골프장(18홀) 등이 준비 중이다.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고창읍)은 총 5억원

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6년 12월까지 27홀(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7홀과 넓은 면적의 환경에서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운곡 파크골프장(아산면)은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파크골프장 18홀(3만7120㎡)과 관리동,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역시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이 외에도 군은 2027년 흥덕면에 북부권 파크골프장을 확충할 예정으로 총 8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각종 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